

“장효조 너무 잘 나가, 신인상 빼!”

김종건의 Let's Go Baseball

잊지 못할 MVP·골든글러브 투표

82년 신인왕은 장효조보다 못한 박종훈
탈락 이유는 “거물급 신인, 신선했음 없어”

84년 ‘1할 타율’ 유두열 한방으로 MVP
4승 투수 최동원 탈락…최대 아이러니

95년 OB ‘MVP 먹기’ 삼성과 흥보 연합
김상호, 20승 투수 이상훈 제치고 압승



1985년 통합우승을 이룬 삼성은 김시진, 이만수, 장효조를 두고 시즌 MVP에 대한 교통정리를 못했다. 해태 김성환이 어부지리를 얻었다. 사진은 삼성 선수 시절의 이만수 SK 감독. 스포츠동아DB

지금 우리는 중요한 선거를 앞봤다. 제 18대 대통령선거가 19일 치러진다. 프로 야구에도 1년을 결산하는 투표가 있다. 시즌 최우수선수(MVP)와 12월 11일의 골든글러브 투표다. 프로야구는 30여년간 많은 투표를 했다. 이 가운데 몇몇의 투표 결과는 아직도 술자리의 안주거리가 될 정도로 많은 뒷말을 낳았다. 논리나 이성보다는 감성에 따라 결정하는 투표의 본질을 보여줬던 아날로그 시대의 투표를 되돌아봤다.

● ‘신인 냄새가 나지 않는다’던 1983년의 장효조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는 1983년 첫 신인왕을 배출했다. 주인공은 OB 박종훈. 성적은 타율 0.312, 3홈런, 24타점(최다안타 1위·출루율 5위)이었다. 1982년 세계 야구선수권대회 출전으로 프로 진출을 1년 미뤘던 스타들이 모두 참가한 그해, 눈에 띄는 성적을 올린 신인은 따로 있었다. 삼성 장효조였다. 타율 0.369, 18홈런, 62타점(타격 1위·홈런 3위·득점 2위·출루율 1위·최다안타 1위)을 기록했다. 박종훈은 성적으로만 보자면 장효조보다 떨어졌다.

그러나 투표인단의 생각은 달랐다. 장효조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워낙 거물급 선수라 신인감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표면적이었다. 너무나 유명한 스타에게 신인상을 준다는 것이 어색하기는 했다. 숨겨진 또 다른 이유는 투표인단과의 관계. 매스컴과 비친화적인 장효조에 비해 박종훈의 평판이 좋았다. 그렇게 역사는 만들어졌다.

● 타격 3관왕도 물먹은 시즌 MVP, 4승 하고도 놓친 한국시리즈 MVP

1984년은 페넌트레이스와 한국시리즈 MVP를 두고 술한 말들이 나왔다. 페넌트레이

스 MVP는 27승의 최동원(롯데)에게 돌아갔다. 경쟁자는 타격 3관왕의 이만수(삼성), 홈런·타점·타율의 3관왕이 고배를 마신 것은 경쟁자였던 롯데 홍문종에게 9연속 4구를 내주며 정정당당한 대결을 막았던 행위에 대한 반발이 결정적이었다. 게다가 이만수는 1983년 시즌 MVP였다.

투표시기도 문제였다. 한국시리즈 최종일에 MVP 투표를 동시에 했다. 롯데 유두열은 7차전 역전 결승 3점홈런으로 한국시리즈 MVP가 됐다. 타율 0.143, 3타점. 역대 한국시리즈 MVP 가운데 가장 낮은 타율이다. 워낙 극적인 한방이라 받을 가치는 있었지만, 시리즈 4승 투수가 MVP를 놓쳤다. 한국시리즈 MVP 투표의 최대 아이러니다. 경기장의 흥분 때문에 취재진이 냉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 명의 선수에게 2개의 MVP를 몰아주는 것보다는 나눠주는 것이 좋은 모양새라는 생각도 있었다.

● 전·후기 통합우승팀이 놓친 1985시즌 MVP

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하게 가을잔치가 벌어지지 않았던 1985년. 삼성은 전·후기 통합우승을 차지했다. 역대 시즌 최고승률(0.706·77승1무32패)이었다. 페넌트레이스 MVP 후보도 삼성이 다수 배출했다. 김시진(다승 공동 1위), 장효조(타격 1위·홈런 3위·득점 1위·출루율 1위), 이만수(홈런 공동 1위·타점 1위·타격 5위)였다. 투표 결과는 의외였다. 해태 김성환(홈런 공동 1위·타점 2위·최다안타 1위)에게 돌아갔다.



OB 김상호의 1995년 시즌 MVP 수상은 삼성과의 연대 덕분이었다. 선발 20승을 거둔 LG 이상훈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 LG는 창단 이래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시즌 MVP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삼성이 후보 3인에 대한 교통정리를 못한 틈을 파고든 해태는 투표인단에게 “1위는 삼성이 당연하다. 우리는 참피당하지 않게 2등만 찍어달라”며 감성에 호소했다. 그해 시즌 MVP 투표는 투표인단이 1~3위를 찍는 방식이었다. 1위 5점, 2위 3점, 3위 1점으로 총점을 합산했다. 장효조는 예상 밖의 결과에 한동안 말을 잃었다.

● 서울 구단의 자존심 대결…1995년과 1998년의 시즌 MVP 투표

서울 라이벌이 자존심을 걸고 투표운동을 하던 때도 있었다. 1995년과 1998년이다. LG는 1995년 20승투수 이상훈, 1998년 공동 다승왕 김용수를 시즌 MVP 후보로 냈다. OB는 홈런과 타점 1위 김상호(1995년)와 타이론 우즈(1998년)가 후

보였다. 특히 1995년은 대단했다. 시즌 내내 1위를 달리던 LG를 제치고 OB가 한국시리즈에 직행했고, 이상훈은 플레이오프 롯데전에서 부진했다. 당시 OB 홍보팀장이었던 구경백 현 일구회 사무총장의 회고, “김상호가 이상훈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고민하다 삼성의 김상두 홍보부장과 연합작전을 폈다. 삼성의 신인왕 후보 이동수와 OB의 김상호를 공동으로 밀기로 했다. 투표를 앞두고 두 팀의 홍보 담당이 지방의 언론사들을 돌며 홍보를 했다. 스킨십 강화였다.” 투표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압승이었다. 강정환 당시 LG 사장은 “OB에 진 것이 아니라 구경백 한 사람에게 졌다”고 한탄했다. 1998년에도 김용수가 우즈에게 패했다.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 @kimjongkeon

야구판에 육성바람…왜?

신생구단 NC부터 삼성·SK도 육성 체제
“선수부족에 몸값은 거품…키우는게 정답”

프로야구에 ‘육성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신생구단 창단과 맞물려 각 구단은 선수 부족을 호소한다. 그렇다고 FA(프리에이전트)를 영입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든다. 각 구단은 “몸값에 거품이 많이 끼여있다”고 불만을 표출한다. 외국인선수 영입에도 비용지출이 만만치 않다. 첫째 연봉 상한선이 30만달러로 책정돼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지 오래다. 한국 시장을 ‘봉’으로 여기는 에이전트들이 협상력을 발휘하면서 연봉이 200만달러 가까이 치솟는 경우도 있다는 후문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구단들은 육성 시스템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신생팀뿐 아니라, 한국시리즈 우승·준우승팀도 마찬가지다.

NC는 2일 박종훈 전 LG 감독을 육성이사로 선임해 발표했다. 메이저리그의 팜 디렉터처럼 선수 스카우트 및 육성을 전담하는 보직이다. 이에 앞서 11월, 삼성은 조병현 전 KIA 감독을 포수 인스트럭터로 초빙했다. 박경완(SK), 진갑용(삼성)을 키워낸 조 인스트럭터는 마무리캠프에서 젊은 포수들을 지도했다. SK 역시 올 하반기 동안 육성 프로젝트를 연구했다. 신영철 사장과 민경삼 단장 등 SK 수뇌부는 11월 팀의 마무리캠프가 차려진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만수 감독과 육성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때 한국프로야구에선 제왕적인 감독이 1·2군을 포함한 선수단 전체를 관장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성적을 낸 구단도 있었다. 그러나 1인 체제는 ‘포스트 제왕’ 시대에 적응력이 떨어진다. 구단들에게는 ‘육성 시스템의 구축’이 시대정신이 됐다. 이를 위해서 확충된 프런트의 영역에 대한 현장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베테임 감독 역시 취임일성으로 “팜 시스템에서 2군 쪽은 구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2군은 2~3년 만에 변화를 주기 쉽다. 팜 시스템에는 팀의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모 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

박병호 ‘올해의 선수상’…이승엽은 ‘올해의 타자상’

넥센 박병호가 7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2012 프로야구 올해의 상’(스포츠투서울 제정·스포츠투토후원) 시상식에서 올해의 선수에 뽑혀 상금 2000만원과 트로피를 받았다. 이승엽과 장원삼(이상 삼성)은 각각 올해의 타자·투수상을 받아 상금 500만원과 트로피를 쟁겼다.

한화, 22일 대전 우송대서 독수리 한마당 축제

한화는 22일 대전 우송대 서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제10회 독수리 한마당 축제를 연다. 이 행사에는 한화 선수단과 팬 1000명이 참가한다. 한화는 팬과 선수단이 함께하는 미니운동회, 장기자랑, 포토타임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참가비는 무료. 신청 접수는 10일 오후 1시부터 한화 구단 홈페이지(www.hanwhaeagles.co.kr)에서 할 수 있다.

KIA 새 캐치프레이즈 ‘피치 아워 패션! 캐치 아워 V11!’

KIA는 7일 “내년 시즌 구단 캐치프레이즈를 ‘피치 아워 패션! 캐치 아워 V11!(Pitch Our Passion! Catch Our V11!)’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KIA는 이번 캐치프레이즈가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팬과 함께 11번째 우승을 거두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 @hk7048

소비자가 인정한 전문기업에서 장인정신으로 만든 이지텍 온수매트

온수매트는 보일러가 생명 10년은 문제없어!

名品
반영구적인 첨단보일러 시스템 장착!
한번 사면 10년 이상 사용하는 이지텍!
확실한 A/S(10년 보장)

제조사 대표(개발자)는 “MBC불만제로 온수매트편 - 기술 전문가로 초빙출연 하였습니다”

아직도 전기줄위에서 주무십니까?

올 겨울은 전자파없는 이지텍온수매트가 건강한 숙면을 책임집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대형 온수매트!
따뜻한 휴식에서 뜨끈한 잠까지 OK!
난방비 90% 이상 절약됩니다!

고물가 시대!
난방비 걱정 끝!
난방비 90% 절약!

아날로그 보일러
Model : HR-5000A

- 전지파 자동차단 센서탑제
- 저소음 자기 부상모터 펌프채움
- 온도센서 • 안전출조
- 수위센서 • 동적센서
- 마이콤컨트롤 • 바이메탈
- 통파방지센서

안전인증 : XD070005-10001B
*다이얼방식의 아날로그 보일러의 내부에는 디지털 마이콤컨트롤 방식으로 설계된 첨단 조절기입니다.

자율안전인증 XD070005-10001B



無 전자파

전자파 NO! 인공지는 수면기능 OK!
특허받은 전자파 자동차폐 시스템!
소음·교잡없는 자기부상 펌프모터 장착!

사계절 사용하는

- 뒤틀면 미끄러움을 방지(Non-Slip)처리!
- 고급재질로 따뜻함과 포근한 규선감!
- 전자파 없는 친환경 상품!
- 산모, 유아, 환자, 노부모의 편안한 선택!
- 4개월 이용이 가능한 경제적인 제품!
- 카펫처럼 밑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하루 8시간 한달 사용 월 5,000원 대의 저렴한 전기료

파격세일판매

싱글 320,000 ▶ 250,000원
더블 350,000 ▶ 270,000원

★온수매트 조절기 별도판매★

타사 온수매트가 불량라서 사용 못하신다구요
온수보일러만 바꾸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매트라도 관계없이 교체사용 가능합니다.

조절기 별도 판매 120,000원

이지텍 온수매트는 전문가가 만든 최고품질의 제품으로 많은 소비자분들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지텍 온수매트·온수매트가 올 겨울 추위와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http://cafe.daum.net/sksk0405 33,000명의 온수매트 매니아가 가입한카페
http://happyroom.net 이지텍홈페이지



제조원: HAPPIEROOM (주)이지텍 ESZYTECH

안전하고 건강한 난방문화를 선도하는 이지텍!
A/S 10년 보장
(2년 무상, 8년 유상)

■입금계좌(예금주: 김지애)
통입: 130014-51-143164
입도: 08시~06시 평일 09시~06시 휴일 09시

대리점 및 구입문의 031)999-8451~4